

교토의정서

교토의정서[京都議定書, Kyoto protocol]란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관한 의정서를 말하며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되었다.

□ 채택 배경

-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
 - * 지구온난화 규제 및 방지의 국제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
- 의정서가 채택되기까지는 온실가스(CO₂)의 감축 목표와 감축 일정, 개발도상국의 참여 문제로 선진국간, 선진국·개발도상국간의 의견 차이로 심한 대립을 겪기도 했으나 2005년 2월 16일 공식 발효

□ 채택의무 내용

- 각국은 2008~2012년 사이에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해야 함
 - * 각국의 감축 목표량은 -8~+10%로 차별화, 유럽연합은 -8%, 일본은 -6%의 온실가스를 2012년까지 삭감 의무

□ 의무이행 대상국

-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총 38개국
 - * 당사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과 조치를 취해야 하며, 에너지효율향상, 온실가스의 흡수원 및 저장원 보호, 신·재생에너지 개발·연구 등의 분야도 포함

- * 2004년 10월 3일 국제 에너지기구(IAE)가 공개한 ‘세계주요에너지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02년 한 해 동안 선진국들은 (교토의정서를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한 미국도) 배출량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

□ 한국의 경우

- 한국은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기후변화 협약상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의무대상국에서 제외되었으나, 몇몇 선진국들은 감축목표 합의를 명분으로 한국·멕시코 등이 자발적인 의무부담을 해야 한다고 주장
- * 아르헨티나 카자흐스탄 등의 일부 개발도상국은 자발적으로 의무를 부담할 것을 선언
-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세계에너지전망 2009 보고서’에 따르면, 1999년 당시 온실가스 총배출량이 OECD 국가 중 10위였으며 2004년부터는 9위를 유지
- *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 한국이 일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를 앞지름
- * 특히 1990년 이후 2007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이 113%로 OECD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

<표 1>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의 국제비교

(단위: 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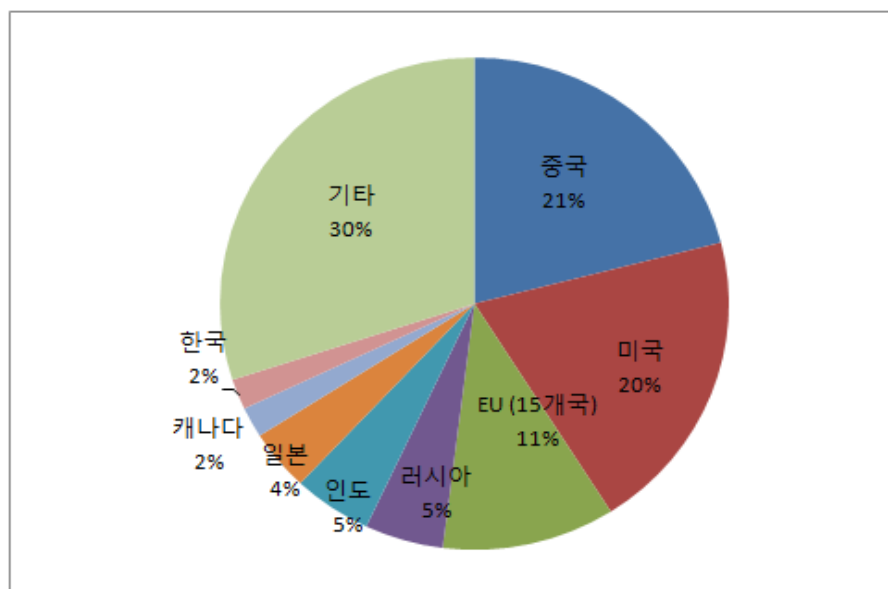
	1971	1980	1990	1995	2000	2005	2007
한국	1.55	3.20	5.28	8.02	9.16	9.48	10.1
일본	7.08	7.44	8.22	8.85	8.28	9.47	9.6
미국	20.09	20.50	19.32	19.18	20.16	19.66	18.7
캐나다	15.50	17.46	15.53	15.71	17.19	16.83	
러시아	-	-	13.64	10.73	10.40	10.43	11.1
독일	12.56	13.84	12.18	10.21	10.16	10.15	
영국	11.20	10.17	9.73	8.16	8.78	8.94	
이탈리아	5.46	6.44	7.05	7.21	7.36	7.47	
프랑스	8.31	8.43	8.06	5.97	6.20	6.16	
중국	0.95	1.42	1.99	2.47	2.36	2.55	4.6

- 그러므로 2013년 이후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감축에 참여하느냐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협상에 임해야 할 처지
- * 자원이 거의 없고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가진 한국은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는 것과 산업구조를 환경친화적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시급한 과제

□ 기타 사항

- 미국은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의 28%를 차지하고 있지만,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2001년 3월 탈퇴 선언
- * 또한 한국과 중국, 인도같은 나라들도 의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지 선진국만 줄이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이유도 작용
- 2007년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량(60억t)이 미국(58억t)을 웃돌아 압도적인 세계1위를 차지, 경제성장으로 향후 배출량이 증가할 예측(그림1 참조)
- * 2013년 이후 선진국은 중국에 삭감을 요구할 예정

〈그림1〉 세계 각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2007년)



〈참고문헌〉

에너지경제연구원 <http://www.keei.re.kr/>

환경성 <http://www.env.go.jp/earth/ondanka/cop.html>